

여고생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의 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장 지 원 이 지 연[†] 장 진 이
 인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등의 심리내적 변인들을 통해 어떻게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35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를 통하여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미쳤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성형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여고생의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체감시는 성형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신체수치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인성적 대상화 경험보다는 이후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선행 변인으로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근접변인으로서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형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교육과 병리적 성형 행동에 대한 상담적 개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성형의도

* 본 연구는 2012년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지연,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

Tel : 032-835-8160, E-mail : becoming@incheon.ac.kr

우리사회의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1만 명당 성형수술 경험자의 수가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디지털타임스, 2011). 또한 아시아 9개국의 10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외모 개선을 위해 성형 수술을 하겠다는 청소년은 59%로 9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동아일보, 2006). 이러한 보도는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에서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며, 단순한 관심 이상의 성형의도 수준 역시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할 의향을 나타내는 성형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손은정, 2008; 손은정, 2012, 윤미선, 2008).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은 발달적 변인(임인숙, 2004), 사회문화적 변인(손은정, 2007; 손은정, 2012; 우형진, 2008; 정형식, 이승희, 김영심, 2005), 신체상에 관련된 변인들(손은정, 2008),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손은정, 2011) 외에도 완벽주의(손은정, 2012), 자기존중감(손은정, 2011) 등 개인의 성격적 변인들을 다루어 왔다. 이 가운데 신체감시 등 신체상에 관련된 변인들은 성형의도와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완석, 조옥경, 2009; 손은정, 2012).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란 자신을 대상화하여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신체를 마치 감시하듯이 바라보는 것으로 신체가 자기애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다. 여성들은 습관적인 신체감시를 통해 신체적 외모에 뿌리를 둔 자기 가치를 발달시키게 되는데(McKinley & Hyde, 1996), 실제로 이러한 신체

감시는 성형의도 외에도 여대생의 섭식장애 증상(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여성 직장인의 일몰입(백근영, 2011) 등 여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대상화이론(objectification theory)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잃어 버리고 관찰자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관찰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라고 하는데(Roberts & Gettman, 2004; Slater & Tiggemann, 2002),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나친 감시로 나타난다.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여성들은 불안, 우울, 신체수치심 등 다양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Harrison, & Fredrickson, 2003; Fredrickson & Rogerts, 1997; Fredrickson, Roberts, Noll, O'Barr, & Hender, 2011; McKinley & Randa, 2005), 신체감시는 신체불만족을 통하여 성형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손은정, 2012).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신체수치심(body shame)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신체가 사회문화적 가치와 동일하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신체감시를 많이 할수록 신체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Fredrickson & Roberts, 1997; Moradi, Dirks, & Matteson, 2005), 신체감시는 신체수치심을 통하여 섭식장애, 우울, 성기능장애 등에 영향을 미친다(Moradi, Dirks, & Matteson, 2005).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과 관련한 Moradi 등(2005)의 모형을 검증한 김시연 등(2010)의 연구에서 신체수치심은 신체감시와 섭식장애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손은정(2007) 연구에서도 신체감시와 부정적 섭식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신체수치심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 등의 신체상에 관련된 변인들이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 등 신체상과 관련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외에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탐색되어 왔는데,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인들은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를 통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친다(문정신, 2003; 손은정, 2011; Cusumano & Thompson, 1997, 2001). 특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손은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란 외모에 대한 이상형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영미, 2005). 이미숙(2008)의 연구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신체상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외모와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는데, 자기개념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 학생일수록 더 영향을 받아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Sinclair(2006)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많아지며, 이와 같은 이상적 신체 표준을 내면화할 때 자신들의 신체에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다(안나영, 2007).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성형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손은정, 2007),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의 외모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게 된다는 Fredrickson과 Rogerts(1997)의 모형은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는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거나(Daniel & Bridges, 2010, 백근영, 2011 재인용),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itchell & Mazzeo, 2009). 또한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시연 등(2010)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들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등은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만큼 성형행동을 초래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간의 통합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여성의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섭식장애를 설명해 온 이론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어 온 대상화이론은 이러한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이론적 모형은 성적 대상화 경험이 섭식장애, 우울증 등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이란 여성이 여성의 신체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중매체 및 사회문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 외모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성은 대상(an object)을 평가하듯 자신의 신체를 보게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하게 된다(Fredrickson & Robert, 1997). 즉, 자신의 신체 외모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관찰자의 관점을 유지하게 된다(백근영, 2011). 따라서 이러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여성의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변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선행 변인으로 하여 이후 심리적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변인들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설적인 구조 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탐색은 극단적인 병리적 성형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과 상담적 개입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 문화 속에서 성적 대상화는 빈번하게 경험될 수 있는 만큼 이후 개인적 차원의 대처와 반응이 중요할 수 있는데, 모형이 검증된다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내면화가 아닌 선택적 내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이후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신체감시와 신체 수치심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적 개입에서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변인 가운데 하나인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중요한지 혹은 선행 변인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등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형의도에 대한 연구가 여대생과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근 청소년들의 성형의도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와 외모만족도와 학교적응간의 관련성이 검증된 만큼(장선철, 송미현, 2004; 조희경, 2009; 최수정, 2006) 여고생들 대상으로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여대생을 중심으로 밝혀진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들의 인과관계적 모형이 여고생들의 성형의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성형의도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둘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 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등의 심리내적 변인들을 통해 어떻게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외에 경쟁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쟁 모형의 설정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완전매개(Daniel & Bridges, 2010,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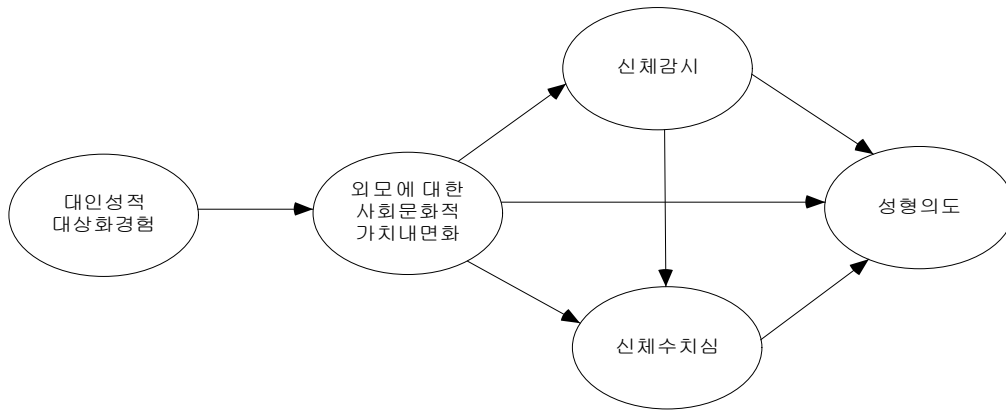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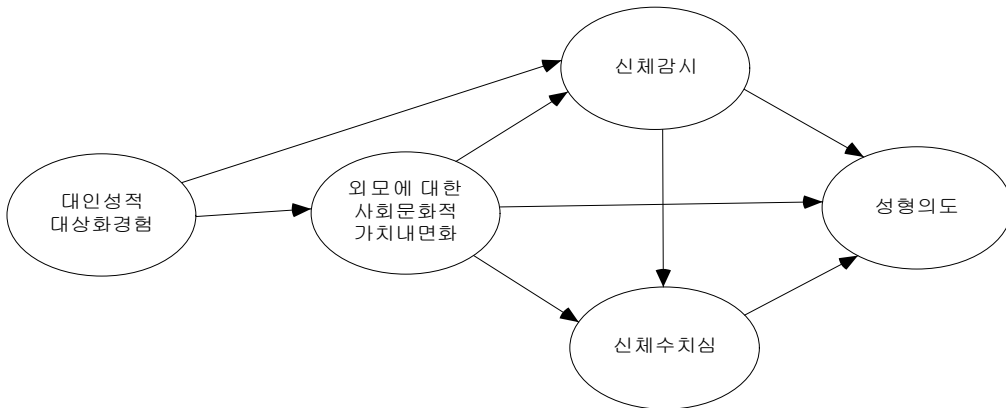


그림 2. 경쟁 모형

근영, 2011 재인용) 혹은 부분매개(Mitchell & Mazzeo, 2009)하는 것으로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구모형에서는 완전매개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경쟁모형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부분매개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과 수업 담당 교사를 통해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382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무성의하게 응답한 25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357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Kozee, Tylka, Augustus-Horvath와 Denchik (2007)가 개발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척도(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ISOS)를 김시연 등(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신체 평가와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접근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방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성적 대상화경험을 많이 하였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당신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의 가슴을 응시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문항인 ‘거리를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을 향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거리를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을 향해 울리는 차의 경적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를 제외한 후 나머지 13문항을 여자 고등학생 110명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신체평가 .89, 노골적인 성적접촉 .79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평가 .90, 노골적인 성적접촉 .79, 전체 척도 .90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Cusumano와 Thompson(1997)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cale)로 문정신

(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각과 내면화 정도를 측정한다. 하위 척도로 자각 12문항과 내면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에 해당되는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나는 나의 몸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등으로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방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정신(200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고,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73으로 나타났다.

신체감시

구자연과 하은혜(2010)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신체외식 척도(K-OBC-Y) 척도를 사용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으로 총 9문항으로 신체감시 4문항과 신체수치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감시 4문항을 분석하였다. ‘나는 내 외모에 대해 자주 사용한다.’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자주 신경을 쓴다.’ 등으로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7점 Likert방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7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감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자연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신체수치심

신체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자연과 하

은혜(2010)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신체 의식 척도(K-OBC-Y) 척도를 사용하였다.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으로 총 9문항으로 신체감시 4문항과 신체수치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수치심 5 문항을 분석하였다.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멋있게 보이지 않을 때 못한 사람인 것만 같다.’ 등으로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7점 Likert방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7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수치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자연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성형의도

Harrison(2003)이 개발하였고 최윤정(2005)이 번안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윤미선(2008)이 여고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성형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비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보다 날씬해지거나 아름다워지기 위해 어느 정도로 성형수술에 동의하십니까?’에 5점 Likert방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1점), ‘이미 했다’(5점)로 응답한다. 두 번째로 제시된 ‘성형수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표시하십시오.’에 5점 Likert방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1점), ‘이미 했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형의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제시된 성형수술은 쌍꺼풀, 코, 안면윤곽교정술, 박피, 부분 지방흡입술, 갈비뼈 제거, 전신 지방흡입술, 가슴성형술, 치아교정 등을 포괄한다. 최윤정(2005)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5이었으며, 윤미선(2008)의

연구에서는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성형의도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 간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단,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제외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성형의도의 잠재변인에 대해 각각 세 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들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가운데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비교와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여 신뢰구간 95%에서 직,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7.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각 변인의 평균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1.86($SD=.66$), 하위요인인 신체평가 2.06($SD=.76$),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접촉 1.40($SD=.6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357$)

	1	2	3	4	5	6	7
1	1						
2	.61**	1					
3	.97**	.77**	1				
4	.38**	.26**	.38**	1			
5	.38**	.26**	.38**	.51**	1		
6	.29**	.10	.26**	.51**	.51**	1	
7	.20**	.11*	.19**	.40**	.40**	.45**	1
M	2.06	1.40	1.86	2.94	2.94	4.70	2.53
SD	.76	.61	.66	.62	.62	1.11	.62
왜도	.70	1.80	.89	-.14	-.39	.13	-.16
첨도	-.06	1.92	.27	.08	.30	-.21	-.18

1. 신체평가 2.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접촉 3.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전체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5. 신체감시 6. 신체수치심 7. 성형의도

* $p < .05$, ** $p < .01$

내면화 2.94($SD=.62$), 신체감시 2.94($SD=.62$), 신체수치심 4.70($SD=1.11$), 성형의도 2.53($SD=.62$)이었다.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간에 유의미한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r=.38$, $p < .01$)이 나타났고, 신체감시($r=.26$, $p < .01$), 신체수치심($r=.20$, $p < .01$), 성형의도($r=.19$, $p < .01$)와는 유의미한 낮은 정도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감시($r=.51$, $p < .01$), 신체수치심($r=.51$, $p < .01$), 성형의도($r=.40$, $p < .01$) 간에는 각각 유의미한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r=.51$, $p < .01$), 성형의도($r=.45$, $p < .01$) 간에는 각각 유의미한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신체수치심과 성형의도 간에는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r=.43$,

$p < .01$)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측정 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또한 $CFI=.960$, $TLI=.946$, $RMSEA=.058$ (90% CI: .045-.070)로 Browne과 Cudeck(1993)의 기준(TLI , CFI 값이 0.9 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 $RMSEA$ 값이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0.10이면 보통 적합도)에 잘 부합되어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 변인들의 요인 값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1인 .46을 제외하고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61~.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46~.92, 신체감시 .70~.91, 신체수치심 .67~.86, 성형의도 .61~.79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3, 표 2,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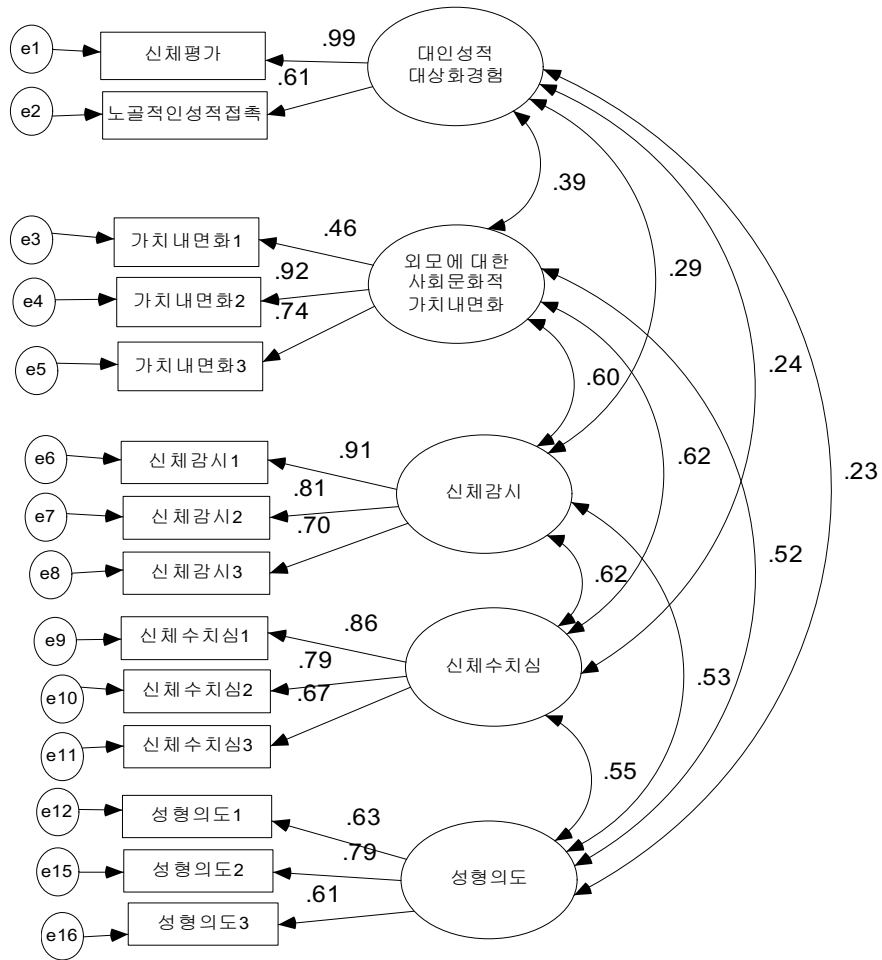


그림 3. 측정 모형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CI)
측정모형	146.60	67	.946	.960	.058 (.045-.070)

표 3. 측정모형의 요인값

척도	하위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표준화계수
대인 성적	신체평가	1.00			.99
대상화 경험	노골적인 성적접촉	.29	.05	5.43***	.61
외모에 대한	가치내면화 1	1.00			.46
사회문화적	가치내면화 2	2.78	.33	8.53***	.92
가치내면화	가치내면화 3	1.78	.21	8.29***	.74
신체감시	신체감시 1	1.00			.91
	신체감시 2	.49	.03	17.44***	.81
	신체감시 3	.45	.03	14.50***	.70
신체수치심	신체수치심 1	1.00			.86
	신체수치심 2	.94	.06	15.21***	.79
	신체수치심 3	.44	.03	12.77***	.67
성형의도	성형의도 1	1.00			.63
	성형의도 2	.82	.09	9.64***	.79
	성형의도 3	.64	.07	8.78***	.61

*** $p < .001$

매개 모형 검증

모형 검증

검증 결과 연구 모형은 $\chi^2 = 149.42(df=70, N=357, p=.000)$, $CFI = .961$, $TLI = .949$, $RMSEA = .056$ (90% 신뢰구간 .044-.069)을 보여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경쟁 모형은 χ^2

$= 146.73^2(df=69, N=357, p=.000)$, $CFI = .961$, $TLI = .949$, $RMSEA = .056$ 을 보여 역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 간에 χ^2 차이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적합도 지수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모형의 경로도를 살펴 보면 경쟁 모형에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적합도 지수	df	χ^2	$\Delta \chi^2$	TLI	CFI	RMSEA (90% CI)
연구모형	70	149.42	2.69(1)	.949	.961	.056 (.044-.069)
경쟁모형	69	146.73		.949	.961	.056 (.044-.069)

신체감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쟁 모형보다는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이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연구 모형을 수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7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의 내생잠재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16.2%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감시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36.2%, 신체수치심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47.8%, 성형의도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38.9%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4와 표 5와 같다.

매개 효과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이 성형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간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에 .40의 직접 효과를 보였고, 신체감시에 .23, 신체수치심에 .24, 성형의도에 .20의 간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신체감시에 .60의 직접 효과를 보였고, 신체수치심에 .39의 직접 효과와 .21의 간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동시에 성형의도에는 .22의 직접 효과와 .31의 간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신체감시는 신체수치심에 .38의 직접 효과를 나타내었고, 성형의도에 .22의 직접 효과와 .11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신체수치심은 성형의도에 .28의 직접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와의 관계,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수치심과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은 대인 성적 대상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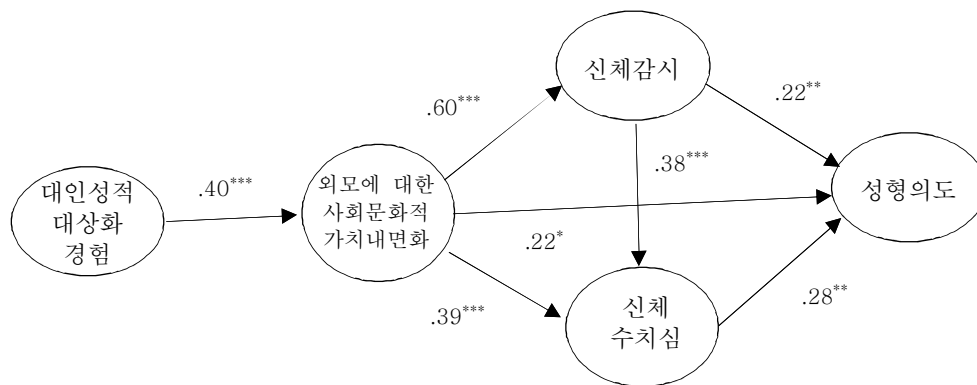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의 경로도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대인 성적 대상화경험	→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내면화	.07	.02	4.24***	.40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 내면화	→	신체감시	1.42	.19	7.27***	.60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내면화	→	신체수치심	1.03	.21	4.94***	.39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내면화	→	성형의도	.51	.21	2.48*	.22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43	.08	5.55***	.38
신체감시	→	성형의도	.22	.08	2.63**	.22
신체수치심	→	성형의도	.25	.08	3.06**	.28
대인성적 대상화경험	→	신체평가	1.00			.97
대인성적 대상화경험	→	노골적인성적접촉	.31	.06	5.58***	.62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내면화	→	가치내면화 1	1.00			.46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내면화	→	가치내면화 2	2.76	.32	8.59***	.9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내면화	→	가치내면화 3	1.77	.21	8.32***	.74
신체감시	→	신체감시 1	1.00			.91
신체감시	→	신체감시 2	.49	.03	17.44***	.81
신체감시	→	신체감시 3	.45	.03	14.49***	.69
신체수치심	→	신체수치심 1	1.00			.86
신체수치심	→	신체수치심 2	.94	.06	15.21***	.79
신체수치심	→	신체수치심 3	.44	.03	12.76***	.67
성형의도	→	성형의도 1	1.000			.63
성형의도	→	성형의도 2	.82	.08	9.63***	.79
성형의도	→	성형의도 3	.64	.07	8.78***	.61
R ²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내면화 16.2%				
		신체감시: 36.2%				
		신체수치심: 47.8%				
		성형의도: 38.9%				

* $p < .05$, ** $p < .01$, *** $p < .001$

험과 성형의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성형의도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성형의도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표 6. 최종 모형의 총효과 분해 및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대인성적 대상화경험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내면화	.40**	.40**	
	→ < 가치내면화 > → 신체감시	.23**		.23**
	→ < 가치내면화 > → 신체수치심	.24**		.24**
	→ < 신체감시 > → 신체수치심	.20**		.2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내면화	→ 신체감시	.60***	.60***	
	→ < 신체감시 > → 신체수치심	.62***	.39**	.21**
	→ < 신체감시 > → 신체수치심	.53***	.22*	.31**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38***	.38***	
	→ < 신체수치심 > → 성형의도	.33***	.22**	.11**
신체수치심	→ 성형의도	.28**	.28**	

* $p < .05$, ** $p < .01$, *** $p < .001$

더불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신체수치심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체감시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감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감시는 성형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체수치심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수치심이 신체감시와 성형의도와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등의 심리내적 변인들을 통해 어떻게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3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우선적으로 각각의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핀 결과, 성형의도는 신체수치심과 가장 관련성이 높았고($r=.45$), 그 다음으로 신체감시($r=.4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r=.4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r=.19$) 순이었다. 이는 신체상에 관련된 변인들이 성형의도와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김완석 등(2009)의 연구와 손은정(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신체수치심이 성형의도와 가장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성형과 관련된 병리적 현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에서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신체수치심에 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완전매개하는 연구 모형과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부분매개하는 경쟁 모형을 비교한 결과, 연구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를 통하여 신체감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Daniel과 Bridges(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보여 준 김시연 등(2010)의 연구와 직장 여성의 일몰입의 구조 모형을 검증하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보여 준 백근영(201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문화적 가치내면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신체감시를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 성형의도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감시는 또한 신체수치심을 초래하여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체감시 외에 신체수치심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교육에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에 대한 자각뿐 아니라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이 초래될 수 있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스스로 자각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 모형의 각 경로에 해당하는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감시 간의 경로계수가 가장 컸는데, 이는 이후 신체감시가 신체수치심과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감시가 이미 이루어지는 단계보다는 그 이전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과정에 대한 관심과 예방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외모에 대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매스미디어 등에 대한 노출로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예방 교육에서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이후 이를 각 개인이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각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와의 관계,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수치심과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고, 신체감시와 신체

수치심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성형의도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감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체감시가 성형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체수치심을 통하여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등의 변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고생의 성형의도와 이후 성형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두 변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이들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와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온 경험적 변인으로서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그리고 신체상과 관련된 변인으로서의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이 여고생의 성형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성형의도를 탐색한 연구는 여대생과 성인 여성으로 연구 대상자가 제한된 한계가 있었는데, 성형에 대한 관심에서 청소년도 예외가 아님이 보고된 만큼 여고생의 성형의도와 그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형 의도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탐색은 올바른 성형 문화를 만들고 병리적인 성형행동을 예방하는 심리교육적 개입에서 다루어

야 하는 주요 변인들이 무엇이며, 성형중독 등 병리적인 성형 행동에 대한 상담에서 평가하고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성적 대상화의 빈번한 경험은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후 개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선행 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선택적이고 합리적인 내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과 상담 장면에서 필요하다. 또한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변인으로서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필요함이 증명된 만큼 상담 장면에서 여고생이 경험하고 있는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입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행 변인으로서 내면화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찾고, 이러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이 특정지역의 여고생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연예계 등 특수한 직종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여고생의 경우에는 본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연구 대상자를 다양화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 명료한 개념적 정리와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며, 성형의도와 실제 성형행동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성형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으로서의 성형의도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정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고생 등 여성의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찾고 이러한 심리적 기제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장면과 상담 장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연, 하은혜 (2010).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Y)의 타당화 연구. *놀이치료연구*, 13(3), 141-158.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 성적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 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 비교.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완석, 조옥경 (2009). 미용성형 의도, 신체이미지와 신체가치관의 관계: 여성요가인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4), 611-632.
- 동아일보 (2006). 여고생 방학 중 성형수술 붐.
- 디지털 타임즈 (2011). 성형중독 탈출, 전문의 역할 크다.
- 문정신 (2003).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근영 (2011). 여성 직장인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일몰입의 관계: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63-81.
- 손은정 (2008).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21-136.
- 손은정 (2011). 성인기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상 및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57-377.
- 손은정 (2012). 성인기 여성의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생애주기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49-173.
- 안나영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형진 (2008).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시청자의 성형수술 행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4), 480-513.
- 윤미선 (2008). 여고생의 대상화 경험, 신체 자존감, 수치심이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2), 97-110.
- 임인숙 (2004). 다이어트의 사회문화적 환경: 여대생의 외모차별 경험과 대중매체의 몸 이미지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8(2), 165-187.
- 장선철, 송미현 (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115-133.

- 정형식, 이승희, 김영실 (2005).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과 동료압력이 성형행동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관리연구*, 10(1), 165-184.
- 조영미 (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상.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경 (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 (2006). 10대 여성의 외모관리문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2005). 미디어에 의한 여성들의 신체불만족 현상에 관한 연구: TV와 잡지 소비로 인한 신체불만족 현상과 다이어트,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의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9-10), 701-721.
- Cusumano, D. L., & Thompson, J. K. (2001). Media influence and body image in 8-11-year-old boys and girls: A preliminary report on the multidimensional media influence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1), 37-44.
- Fredrickson, B. L., & Rog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Fredrickson, B. L., Roberts, T-A., Noll, S., O'Barr, J. F. & Hendler, L. (2011). Bringing the body back: A retro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objectification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9), 689-696.
- Harrison, K. S. (2003). Television viewer's ideal body proportions: The case of the curvaceously thin woman. *Sex Roles*, 48(5), 255-264.
- Harrison, K. S., & Fredrickson, B. L. (2003). Women's sports media, self-objectification, mental health in black and white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Communication*, 53(2), 216-232.
- Kozee, H. B. Tylka, T. L. Augustus-Horvath, C. L., & Denchik, A. (2007).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2), 176-189.
- Mitchell, K. S., & Mazzeo, S. E. (2009). Evalu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objectification theory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Europ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4), 384-395.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McKinley, N. M., & Randa, L. R. (2005). Adult attachment and body satisfaction: An exploration of general and specific relationship

- differences. *Body Imag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2(3), 209-218.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 (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20-428.
- Roberts, T., & Gettman, J. Y. (2004). Mere expo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negative effects of priming a state of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51(1-2), 17-27.
- Slater, A., & Tiggemann, M. (2002).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in adolescent girls. *Sex Roles*, 46(9-10), 343-349.
- Sinclair, S. L. (2006). Object lesson: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wome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1), 48-68.
- 1 차원고접수 : 2012. 10. 16.
심사통과접수 : 2012. 12. 02.
최종원고접수 : 2012. 12. 1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Desire for Aesthetic Surgery o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ation of the Sociocultural Standards
of Ideal Appearance,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Ji-Won Jang

Jee-Yon Lee

Jin-Yi Jang

University of Inche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a multi-dimensional hypothetical model on important variables of the intension of plastic surgery amo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survey included 357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rom Metropolitan area. Results of testing the model showed that internalization of the sociocultural standards of ideal appearance, body surveillance, body shame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the intension of plastic surgery. The internalization of the sociocultural standards of ideal appeara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the body surveillance. And the internalization of the sociocultural standards of ideal appearance directly influenced on intension of plastic surgery or indirectly affected on intension of plastic surgery through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Implication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internalization of the sociocultural standards of ideal appearance, body surveillance, body shame, intension of plastic surgery